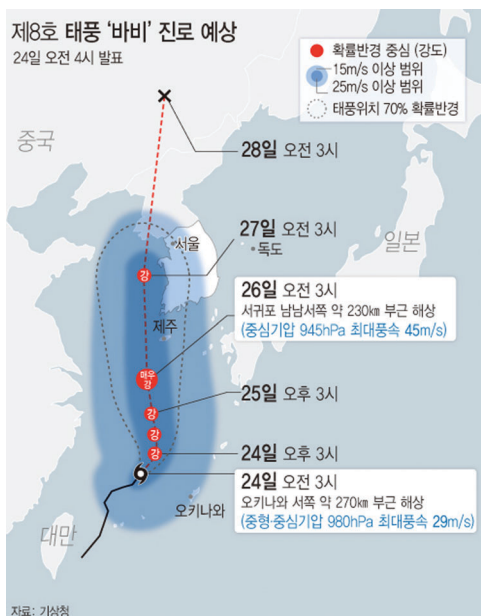


‘태풍 바비 길목’ 신안 흑산도 가거도 주민들 ‘초긴장’

소형 어선 육상 인양·지붕 등 시설물 결박 완료
방파제 공사현장 해상 크레인 등 안전지대 이동
2019년 ‘링링’·2012년 ‘볼라벤’과 경로 비슷



의 향후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목포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타이완 남남동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바비(BAVI)는 26일 제주도 왼쪽을 지나 전남 서남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흑산도와 가거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2019년 '링링', 2012년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으며, 세력은 현재 '소형급'이지만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가거도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방파제 공사 현장 옹벽 50m가 유실됐으며, 흑산도에서는 전복과 우럭 양식장의 80%가 피해를 입었다. 가거도 주민들은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 지붕 등 시설물을 결박하고, 소형 어선 20척은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 적치장으로 옮겼다. 또 낚시어선 7척은 목포와 진도로 피항했으며, 큰 배들은 흑산도항 등으로 이동을 완료했다.



“태풍 피해라” 긴장하는 제주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2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남부 먼바다의 높은 파도를 피해 출항해 정박해 있다.

정광수 신안군청 가거도출장소장은 “주민들이 태풍의 경험이 많아 시설물을 결박하고, 선박들은 피항을 완료했다”면서 “방파제 공사장도 바람에 날아갈 것들은 정리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은 500t급 해상 크레인 등 공사용 선박 5척을 흑산도항으로 피항시켰다. 박길호 흑산면장은 “소형어선은 이미 육상으로 옮겨지고, 지난해 피해가 컸던

장도 앞 양식장은 인력지원을 받아 시설물 결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은 합석·슬레이트 지붕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결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역대급 수해’에 ‘코로나19’ 공포까지 시름깊어진 전남동부

“40년만에 큰 수해가 휩쓸고 간 전남 동부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제는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순천에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해온 상인은 24일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계속 발생하면서 거의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남 동부권은 여름 휴가철 수십만 관광객이 다녀감에도 코로나19 지역감염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방문판매업체 설명회를 다녀온 순천의 70대 여성(순천5번)이 20일 확진된 이후 나흘 만에 16명이 연속적으로 감염되는 등 n차 감염이 지속되면서 순천은 팬데믹 직전의 공포심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순천 홈플러스 푸트코트와 이마트 푸트

코트를 찾은 시민의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확진판정 받은 40대 여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헬스클럽과 사우나 등을 하루 두번 찾는 등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380여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n차 감염이 이뤄지면서 임시로 마련된 순천팔마체육관 드라이브스루는 밀려드는 차들로 도로 정체까지 빚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마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폭주해 결과도 평소보다 2~3일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보건소의 여성 공무원 선별진료소 밤샘 근무 중 확진됐으며, 보건직공무원 2명이 밀려드는 검사에

과로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4일 비상 담화문을 통해 “팬데믹에 비극가는 상황이 순천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동도 고려해야 하기에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외출 및 모임 금지 등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순천시는 낙안읍성과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장 등 4대 관광지를 폐쇄했다. 심각하기는 광양시도 마찬가지다. 광양에서는 서울에서 광양을 찾은 딸의 가족을 만난 60대 여성(광양3번)이 확진된 이후 22일 오전 제철협력회관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3명이 확진됐다. 이후 여성들의 가족에게 전파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다.

순천과 광양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전남 동부지역 ‘공공’ 40년만의 수해 복구도 힘든 구레, 자원봉사도 줄어 ‘이중고’

순천·광양시와 20분 거리의 여수시는 휴가철인 8월에만 91만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확진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으나,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지역감염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여수시는 순천 및 광양시에 출퇴근자가 많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공장들로 전파될 시 가동 정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도 예상돼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많은 비와 섬진강 홍수로 도심이 잠겨 버린 구례군도 수해 참사의 복구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까지 막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복구를 위해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구례를 찾아왔으나 동부권에 엄습한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 수가 크게 줄면서 24일 군 장병 외 30~40여명의 민간인만 복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마저도 25일 군인들이 떠나면 구례는 아예 일손을 보아야 할 판이다. 순천시민 최모(53)씨는 “코로나 확산에 순천시가 공공 얼어붙으면서 어리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는 비단 순천시뿐만 아니라 교류가 활발하고 공동 경제권인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시민도 공포와 시름은 마찬가지여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